

부산상공회의회

Story for 부산CEO

Show

4월호

2023. 04 Vol. 613



Contents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MAGAZINE 2023 vol. 613

발행일 2023년 4월 3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활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디자인·제작 (주)프린테크 051-301-3113
표지디자인 메이플디자인 051-257-0302



BCCI Special

04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초청 상공인 간담회 개최

부산상공회의소 한덕수 국무총리
부·울·경 기업현장 간담회 개최



핸드폰을 통해
부산상공회의소 Show를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CEO 취향저격

08 국내 여행지 추천
1박 2일로 떠나는 경주 봄 여행

12 골프에 반하다
- 일본 홋카이도로 떠나는 골프여행
- 골프와 페어웨이

16 메시지 인 시네마
<테슬라> 세계 전환의 기술을 상상한 남자

18 CEO 단골 맛집
맑고 깔끔한 국물이 일품인 '부광돼지국밥'

20 건강 돌보기
급증하는 당뇨 인구, '당뇨병' 바로 알기

22 가객의 인문학
봄날, 반가운 조종의 노래 '벚꽃엔딩'

ZOOM in BCCI

- 24** STORY OF 캡틴장
- 26** Together with 2030
음악사로 풀어 본 2030부산세계박람회
- 28** 기업포커스
진양금속(주)
- 34** Look at Me
스타트업 '쥬푸드트레블'

트렌드 TALK

36 새로운 삶을 찾아나서는 리본(Re-Born) 세대

경제 트렌드

- 38** 경제키워드
- 양손잡이 혁신을 하라
- 주52시간제 바뀐다
- 42**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 44** 부산경제계 이모저모
- 46** 멤버스 라운지
- 일자리 지원사업
-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초청 상공인 간담회 개최



부산상의, 국회 특위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 다짐

부산상공회의소는 3월 17일(금) 17시 10분, 부산상의 국제 회의장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기 위해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초청하여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 미55보급창 이전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필요한 핵심 현안들을 부산 상의가 지역경제계를 대표하여 국회 특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장인화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호 위원장과 서병수 의원 등 여·야 특위위원 10명과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하였다.



지역 기업인들과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위 위원들

지역경제계,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위한

특별법 개정 등 초당적인 입법 지원 건의

간담을 통해 지역기업인들은 최근 엑스포 유치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관련 특별법 개정과 건설공단법 제정 등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요청하였다. 미55보급창 부지 이전과 관련해서도 엑스포 개최지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해당 부지의 이전은 복합재개발의 핵심인 만큼 해수부, 국방부 등

관계 당국과 주한미군의 논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 현재 지지국가 확보를 위해 사우디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의원친선협회와 의원연맹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회 차원의 유치 교섭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국회 유치 특위 위원들에게 건의하는 골든블루 박용수 회장, 대원플러스건설 최상섭 회장, 화승네트웍스 박동호 대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을 맞춰 범국민적 유치 열기 확산 위한 협력 논의

이에 국회 특위도 엑스포 성공유치에 필요한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11월 유치 결정을 앞두고 해외 득표 활동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회의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유치교섭 활동에 나설 것임을 전하였다.

향후 부산상의와 국회 특별위원회는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을 앞두고 범국민적인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안병길 의원



장인화 회장은 “며칠 전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의 핵심시설인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조기개항이 확정됨에 따라 유치활동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치의 1차 관문인 국제 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에 앞서 국민적인 열기를 최대한 응집시켜 나가야 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 그리고 부산시와 지역경제계가 원팀이 되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



간담회 후 지역기업인들과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위 위원들 기념촬영

부산상공회의소 한덕수 국무총리 부·울·경 기업현장 간담회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인화 회장, 부·울·경 지역 기업인들 기념촬영

부산상의, 대한상의와 함께 부·울·경 수출 및 투자확대 위한 범정부 간담회 개최

부산상공회의소는 21일(화) 16시,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부·울·경 기업 현장 간담회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국무총리 현장 간담회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국무총리 현장 간담회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충남 아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부·울·경 지역의 투자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부 등 주요 부처 실장들과 부·울·경 3개 시도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르노코리아자동차(주) 스테판 드블레즈 대표, (주)금양 류광지 대표, 디케이락(주) 노은식 대표 등 부·울·경 지역 주요 기업인 10여명이 함께 하였다.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인화 회장, 부·울·경 기업인들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기업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애로가 무엇인지, 또 어떤 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나 유치활동이 어려운지 파악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아울러 부산의 발전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의 행사인 만큼 개최지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인화 회장은 “3고 현상으로 녹록치 않은 환경이지만 정부가 위기 극복의 키플레이어인 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지원에 나섬에 따라 일선 기업들이 많은 힘을 얻고 있다”면서, “주52시간 근무제 등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들과 기업규제 내용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길 바라며, 오늘 자리가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된 내용의 진행상황을 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봐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부·울·경 대표기업,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규제개선 과제 현장 건의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해외자원개발 투자 관련 정부 지원 △제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입주 면적 제한 해소 △해의 수주에 따른 선수금 환급보증 은행 대출한도 제외 △조선훈 외국인근로자 장기근속 특례 제도 시행 △자동차운반선 제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요청 △국가산단 산업시설구역 내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및 운영 허용 등 10여 건의 과제를 건의하였다.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하고 있는 부·울·경 지역 기업인들



1박 2일로 떠나는 경주 봄 여행

글·사진_ 문철진 여행작가

봄이 절정으로 향하는 4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단연 경주다. 불국사와 첨성대 정도로만 경주를 추억하는 사람이라면 경주의 봄이 얼마나 대단할까 싶겠지만 온 도시가 벚꽃으로 뒤덮이는 천년고도의 황홀한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나면 분명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경주의 봄을 제대로 즐기려면 일주일도 모자란다. 그 중에서도 봄 향기가 물씬 풍기는 핵심 여행지만 엄선해 여행 코스를 만들었다. 1박 2일 동안 경주 곳곳을 두루 둘러보며 신라의 봄을 만끽해보시길 바란다.

DAY 1

10:00 월정교

부산에서 경주까지는 자동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린다.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신경주역까지 30분이면 도착한다. 경주 곳곳을 자유롭게 여행하기에는 대중교통보다 직접 운전을 하는 편이 낫다. 1박 2일의 시간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부산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첫 날 오전부터 경주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주시 교동에 있는 월정교다. 통일신라시대에 지어졌던 교량인 월정교는 조선시대에 유실됐다가 지난 2018년에 복원됐다. 길이 66m, 폭 13m, 높이 6m의 국내 최대 규모의 목조



교량으로 다리 위에 기와지붕이 있는 독특한 구조에다 다리 양 옆에 누각까지 설치돼 웅장함을 더한다. 밤이 되면 아름다운 조명이 불을 밝히면서 또 한 번 관광객들의 시선을 빼앗는다. 바람이 잔잔한 날에는 다리 아래 수면에 비친 월정교의 모습이 '월정교'라는 이름처럼 고요하고 은은하다. 월정교를 건너면 곧장 교촌한옥마을로 들어선다. 신라 최초의 국립대학인 '국학'이 있던 곳으로 고려시대에는 향학, 조선 시대에는 향교로 그 명맥을 이어온 유서 깊은 마을이다. 400년 동안 부를 이어온 경주 최부자 고택을 비롯해 오래된 한옥이 많이 지금도 남아 있다. 돌담길을 따라 미로처럼 이어지는 골목길 너머로 기품 있는 기와집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마을 곳곳에 자리한 체험공방과 카페, 기념품 가게들을 구경하다 보면 한 두 시간은 훌쩍 지나간다. 경주의 한정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도 여럿 있으니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일정을 시작하는 것도 좋다.

14:00 대릉원

교촌한옥마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첨성대와 대릉원, 동궁과 월지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모여 있는 경주역사유적지구다. 가장 먼저 만나볼 곳은 23기의 신라시대 고분들이 모여 있는 대릉원이다. 벚꽃이 피는 4월 초에 대릉원을 방문한다면 가장 먼저 미추왕릉으로 달려가자. 다른릉과



1 2 3 월정교
4 5 대릉원

달리 주변에 담장이 둘러져 있는 미추왕릉은 봄이면 왕릉 주변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장관을 이룬다. 죽은 자의 공간을 뒤덮은 봄의 생명력은 생과 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본디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한다. 벚꽃이며 목련이며 개나리에 진달래까지. 4월의 대릉원은 온갖 봄꽃들로 가득하다. 특히 왕릉 사이에서 한가득 꽃을 피워낸 목련은 줄을 서야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사진 스팟이다. 대릉원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길을 걸으며 즐기는 봄 풍경도 황홀하다. 담장 너머로 늘어뜨린 가지마다 새하얀 벚꽃이 풍성하게 매달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벚꽃길은 만든다. 한복까지 차려 입는다면 금상첨화. 대릉원 주변에서 한복 대여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17:00 동궁과 월지

서산 너머로 해가 누엣누엣 넘어가면 동궁과 월지로 가야할 시간이다. 가장 경주다운 야경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안압지'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신라시대 왕자들이 기거하던 별궁이 있던 자리였는데 오리가 있는 연못이라는 뜻으로 '안압지'라 불리다가 최근 들어 '동궁과 월지'라는 제 이름을 찾았다. 연못 주변으로 작은 숲길이 이어진다. 언덕을 오르 내리기도 하고 울창한 숲속을 지나기도 한다. 산책로를 지날

때마다 달라지는 동궁과 월지의 풍경이 이채롭다. 멋진 노을 감상하며 연못 주변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들뜨다. 하늘을 물들인 붉은 기운이 서서히 사그라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연못 주변 건물에 하나 둘 불이 켜진다. 신라의 왕들과 귀족들이 연회를 했던 별궁이 다시금 되살아난 것처럼, 어둠이 짙어질수록 불빛은 화려해진다. 잔잔한 호수에 비친 반영은 동궁 야경의 하이라이트다. 동궁 뒤로 떠오른 둥근 달은 화룡점정. 누구도 감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신라의 달밤에 풍덩 빠지고 만다.



동궁과 월지

DAY 2

10:00 보문관광단지

인공호수인 보문호를 중심으로 조성된 보문관광단지는 특급호텔과 컨벤션센터, 휴양시설, 놀이공원 등을 두루 갖춘 경주 대표 관광지다. 관광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경주여행의 베이스캠프로 잡기도 한다. 대부분의 가로수가 벚나무여서 4월 초에는 환상적인 벚꽃 풍경을 만날 수 있어서 경주 봄 여행에선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다 벚꽃 시즌에는 인파가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오전에 방문하는 것이 그나마 덜 붐빈다. 보문호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면서 벚꽃 풍경을 감상해도 좋고 자동차를 타고 보문호를 따라 달리면서 벚꽃이 훑날리는 모습을 감상해도 좋다. 작은 연못 주변으로 벚꽃이 만발하는 보문정은 사진가들이 사랑하는 경주의 벚꽃 명소다. CNN이 한국에서 가파야 할 아름다운 장소로 꼽기도 한 보문정에선 수양버들처럼 긴 가지를 늘



1 2 보문관광단지

어뜨린 수양벚꽃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문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황룡원 주변도 놓칠 수 없는 벚꽃 사진 명소다. 신라시대 황룡사 9층 목탑을 재현한 황룡원과 벚꽃의 어울림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점심은 경주의 명물인 순두부찌개로 해결하자. 보문관광단지 내 경주동궁원 맞은 편에 순두부 가게들이 모여 있는 순두부골목이 있다. 해물로 맛을 낸 칼칼한 국물과 부드럽고 고소한 순두부의 조화가 일품이다.



14:00 황리단길

1박 2일 경주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황리단길이다. 수년 전부터 황남동 일대에 감각적인 카페와 개성 넘치는 음식점, 선물 가게 등이 모여 들면서 경주에서 가장 젊은 거리로 인기를 얻고 있다. 초기에는 도로변의 몇몇 가게들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골목 안쪽까지 거리가 확장되면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험한 가게들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여간 크지 않다. 원래 있던 한옥을 개조해 만든 가게들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 한옥을 새로 지어 오픈한 가게들도 많아서 거리 곳곳에서 경주의 멋이 듬뿍 느껴진다. 한복을 차려 입고 걷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마치 신라의 거리를 걷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옛집과 마당이 인상적인 카페 '스핑크스'는 황리단길의 대표 하는 한옥 카페로 인생샷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늘 문전성시다. '료코'는 황리단길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돈가스 맛집이다. 입에서 살살 녹는 육질과 입 안에서 터지는 육즙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돈가스는 먹기가 쉽지 않다. 🍴



3 4 황리단길



일본 홋카이도로 떠나는 골프여행

홋카이도 클래식 골프클럽

일본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홋카이도. 홋카이도는 봄과 여름 모두 선선한 날씨를 자랑하여 쾌적하게 골프를 즐기기에 좋은 여행지다. 다양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많으며, 휴식을 위한 온천도 많아 관광과 골프를 함께 즐기기에 제격이다.



골프장 추천

→ 홋카이도 골프클럽

2가지 유형의 코스를 즐길 수 있는 골프장으로 이글 코스와 라이언 코스가 있다. 이글 코스는 수면을 많이 도입한 아름다운 경관과 안정감이 있는 넓은 아메리칸 타입이며, 라이언 코스는 거칠게 크고 작은 마운트로 구성되어 스코티 스타일로 힘들고 거친 코스를 플레이할 수 있다. 카트 운전석 위쪽에 태블릿을 통해 점수를 작성하거나 코스맵을 볼 수 있고 GPS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준다. 그리고 인원에 맞춰 골프백을 준비해야 하는 등 규정을 엄격하게 지킨다. 운이 좋다면 북해도의 야생 여우를 볼 수 있다.

→ 더노스 컨트리클럽

신치토세 공항에서 15분만에 18홀의 대 파노라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골프장으로 프로골퍼 출신 디자이너 아오키의 인생의 집대성이라고 말하는 코스다. 일본에서도 PGA 투어의 무대가 되는 골프 코스를 경험 할 수 있도록 도전 정신을 자극해 디자인 한 골프장이다. 아오키 본인이 플레이해 온 오거스타의 화려함, 영국의 명문 세인트 앤드류스와 같은 터프함을 겸비한 세계에서 통용되는 초일류의 골프 코스를 목표로 만들었다고 한다.

→ 홋카이도 클래식 골프클럽

1991년에 완공된 이 코스는 일본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골프 코스 중 하나이다. 디자이너 잭 니클라우스는 “이 골프장은 내 고향 뮤어필드 빌리지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설계됐다”고 하었다고 한다. 자연 경관과 전략적인 요소가 완벽하게 혼합된 이 코스는 잭 니클라우스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 1 홋카이도 골프클럽
- 2 더노스 컨트리클럽



- 3 게이한 삿포로 호텔
- 4 삿포로 프린스 호텔

- 5 노보리베츠 지옥 계곡
- 6 카무이 스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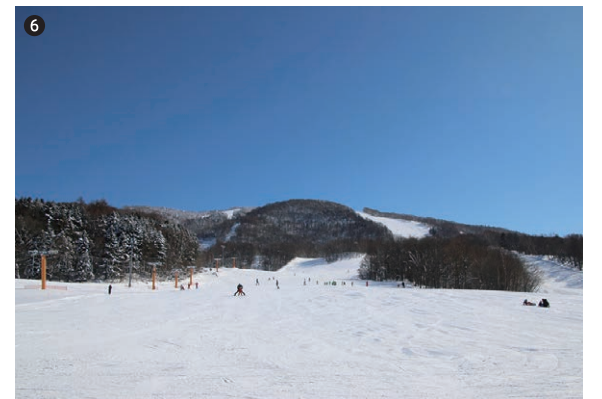
관광지 추천

→ 노보리베츠 지옥 계곡

히와산의 분화 활동에 의해 생긴 직경 약 450m, 면적 약 11ha의 폭열 화구 흔적으로 계곡을 따라 수많은 용출수와 분기공이 있다. 거품을 끓이는 듯한 풍경은 「귀신이 사는 지옥」의 유래가 되었다. 여기에서 다양한 종류의 온천이 하루 1만t 가량 솟아 나와 주변의 온천가의 호텔이나 여관에 공급되고 있다.

→ 카무이 스키장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에 있는 스키장으로 「홋카이도 파우더 벨트」의 메인 스키장 중 하나이며 홋카이도 지역 내에서 최대급의 스키장이며, 시가지 근교에 있으면서 파우더 스노우(실키 스노우)를 즐길 수 있는 스키장으로 5월초까지 스키를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호텔 추천

→ 게이한 삿포로 호텔

JR 삿포로 역에서 도보로 단 4분 거리이다. 호텔 게이한 삿포로는 북해도의 유명 관광지를 여행하기에 이상적 숙소로 깔끔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루의 여행을 끝낸 뒤에는 본 호텔에 있는 투숙객들에게 완전 무료인 자연 온천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삿포로 프린스 호텔

도시의 전망과 무료 Wi-Fi를 갖춘 깔끔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도리공원과 니시11초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다. 호텔 28층의 스카이 라운지 바에서 아름다운 전망을 바라볼 수 있으며, 같은 층에 있는 프랑스 레스토랑은 맛집으로 유명하다.

골프와 페어웨이

글_ 김대곤 대표  Ytour&golf
www.ygolf.co.kr

친숙한 골프 용어들이 있다. 홀인원, 버디, 파, 굿샷, 페어웨이 등은 골퍼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용어들이다. 모두 외래어라 골프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우리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데 이중에 쉽게 설명이 가능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페어웨이(Fairway)다. 이 말은 티그라운드와 그린을 연결하는 홀 중앙부분으로, 잔디를 깔끔하게 깎아 공을 치기 좋게 만든 곳을 말한다. 올바르게 친 공의 정상적인 통로가 정확한 해석일테고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공정한 길’쯤 될까? 골프는 심판이 없는 유일한 스포츠다.

골프는 상대가 있기는 하더라도 그냥 내 길을 가면 그만이다. 자기 자신과의 경기이니 성숙한 골퍼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러프에 공이 떨어져도, 공을 찾지 못해도, 혹은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룰에 따라 플레이를 한다. 이게 페어플레이고, 페어웨이로 가는 것이다.

골프에선 그 무엇보다 페어웨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얼마전 골프 프로의 타수를 감춘 비매너 플레이는 그런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매너와 품격이란 골프의 소중한 본질을 일반인이 아닌 프로가 훼손한 것이다. 경기 후 한달이 지나서야 타수를 속인것을 인정했고, 다수 갤러리의 의혹제기 후 부정행위를 인정한 터라 여론은 싸늘했다. 몇 년의 자격정지 발표 후 정계가 과하다는 여론이 일부 있긴 하였으나 이미 었질러진 물. 촉망받던 유망주의 커리어는 단 한번의 실수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렸다. 이처럼 골프의 페어플레이는 실력, 자질, 배경 등 모든 것을 압도한다.

활쏘기와 닮은점이 많은 골프

페어플레이를 위한 샷 지침서가 이미 2500여 년 전에 있었다면 믿겠는가? 놀랍지만 있었다. “이미 샷을 보면 그 사람의 덕과 사람됨을 볼 수 있다”는 중국 고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그 어떤 교본보다 깊이 있고 훌륭한 골프지침이 아닐까? 2500년 전에 골프가 없었을테니 샷(Shot)은 활쏘기를 말한 것이다.

활쏘기는 옛 선비들이 문무를 겸비하고 자신을 수양하는 한 방법으로 즐겨했던 운동이자 놀이였다. 이 활쏘기와 골프는 닮은 점이 참 많다. 상대가 있지만 자기 자신과의 경기란 점이 그렇고, 예의를 중시하고 바른 마음과 자세를 통해 화살을 쏘아야 과녁에 적중할 수 있다는 점도 그렇다. 또 활쏘기에서 그 사람의 인품을 볼 수 있다는 점도 골프와 많이 닮았다. 매너를 중시하고 동반자를 배려하며 샷이 잘못되어도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훌륭한 골퍼를 우리는 신사라 부른다. 공자는 “군자는 다투는 법이 없다, 굳이 다투면(爭) 활쏘기가 있을 뿐이다”라고 활쏘기를 예찬하고 있다. 골프는 신사의 운동이고 활쏘기는 군자의 운동인 셈이다.

비즈니스에는 더 강한 페어웨이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비즈니스 세계에도 페어웨이는 필요하다. 명예가 중요한 스포츠보다 더 강한 페어웨이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 얼마 전 인터넷에 신생 벤처 젊은 사장의 동영상이 반향을 불러온 이유다. 젊은 사장에 말에 따르면

투자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찾아온 대기업 임원이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디어는 물론 기술까지 전부 모방하여 제품을 출시했다는 것이다. 이후 대기업은 젊은 사장의 항의를 외면했고, 젊은 사장의 이러한 일을 인터넷에 올리며 법적 분쟁을 시작하겠다고 하였다. 혹자들은 벤처기업에 대해 그러게 왜 다 알려주냐고 탓할 수도 있지만 젊은 사장은 데쓰밸리를 건너는 중이라 투자를 위해 영업비밀을 오픈하였던 것이다.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만 봐도 생존과 자금에 대한 고민은 일상이다. 젊은 사장에 대한 부족함을 탓하기 전에 회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대기업 임원의 불공정이 더 크게 보인다. 페어웨이는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필요하다. 명예가 중요한 스포츠보다 더 강한 페어웨이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상기 대기업의 사례는 두고두고 공분을 살 일이다.


지속성장은 페어웨이라는 공정의 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골프로 치환시켜 보면 이제 갓 골프를 시작한 비기너는 멀리 건도 쓰고 소위 그린에 공을 올리지만 해도 오케이 사인을 받기도 한다. 약자에 대한 배려이고 비기너에 대한 지원이다. 이미 갖춘게 많은 골프경험자에게는 그럴 수 없다. 골프에 진심이라면 정확한 본인의 타수는 본인이 알고 정확하게 스코어에 기입하여야 한다.

골프경험자도 비기너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 동반자에게 많은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골프상급자의 위치에 올라섰을 것이다. 선배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가는 길. 후배가 걸어갈 길은 오롯이 페어웨이라는 공정의 길을 통해서만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다. 골프상급자가 된다는 것,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사회적 지원과 혜택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페어웨이에 안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의 성장은 오롯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사회로부터 받은 것은 돌려주어야 한다. 페어웨이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동반자는 같이 성장한다. 페어웨이를 벗어난 트러블샷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페어웨이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나와 동반자를 함께 즐겁게 한다.

불확실성의 시대, 페어웨이는 더 필요하고

기업의 품격을 잃지 않아야

요즘 경기에 찬바람이 분다. 금리는 치솟고 환율도 널뛰기 중이다. 금융위기 재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많은 곳에 불확실성이란 어두운 그림자가 시장에 드리우고 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젠 뭔가 다시 해볼만한 시간인데 걱정스럽고 우울하다. 어려운 시장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질지도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공정거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경쟁업체 간에도 보이지 않는 신사협정이 작용하고, 고객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기업의 크레딧과 품격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도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도 ‘페어웨이’는 중요하다. 앞으로는 버디나 파라는 말보다 페어웨이라는 용어를 더 사랑해야겠다. 

골프를 위한 격언

- ➡ **강타(强打) 하려면 경타(輕打)하라.**
드라이버만 잡으면 세계 치려고 힘이 잔뜩 들어가는 초심자들이라면 가슴에 새겨 둘 만하다. 골프는 역설의 스포츠다.
- ➡ **골프는 실수로 이루어진 게임이다.**
싱글 플레이어도 잘 치는 샷은 6~7개에 불과하다. 전설적인 골퍼 벤 호건도 “골프는 실수로 이루어진 게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필드에서 좀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
- ➡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샷’이다.**
실수에 절망하지 말고 그 다음 샷에 집중하라는 조언이다.
- ➡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안다. 이틀을 하지 않으면 갤러리가 안다. 그리고 사흘을 하지 않으면 온 세계가 안다.**
아마추어들은 일주일에 하루도 연습하지 않으면서 잘 치려고 하고, 안 맞으면 화를 낸다. 열심히 연습해야 필드에 나가서 행운도 따르는 법이다.
- ➡ **나의 기술을 의심할 때는 있어도 나의 클럽을 의심할 때는 없다.**
잭 니클라우스의 말이다. 하수들은 정반대다. 클럽을 바꾸면 좋은 샷을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고수는 한 타를 버려서 위기를 극복하지만 하수는 한 타를 아끼려다 위기를 자초한다.**
필드에 나가면 잊지 말아야 할 하비 페닉의 명언이다. 보기로 막을 걸 욕심 부리다 더블, 트리플 보기로 끝나는 게 하수들에게 정말 다반사다. 이 명언대로만 해도 몇 타를 줄일 수 있다.



테슬라

세계 전환의 기술을 상상한 남자

글_ 김은정 영화평론가/영화의전당 시네도슨트



테슬라.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름이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 엔비디아(NVIDIA)의 고급형 그래픽카드, 자기장을 표시하는 국제 단위 T, 미국의 수소 트럭 제조사 니콜라... 이 명칭들은 모두 19세기 물리학자이자 전기공학자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에서 따왔다. 테슬라는 현대 기술문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그러나 그는 19세기 당대엔 몽상가 또는 외톨이, 결벽증이 있는 미치광이 과학자, 그리고 세상살이의 이치와 경제관념이 부족한 비운의 천재로 불리기도 했다. 그의 천재성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그의 상상은 21세기 문명의 출발점이다. 모두가 불가능한 실험을 한다며 그를 외면할 때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다. “내 꿈은 모두 현실이야.” 그렇다, 그의 꿈은 오늘의 현실이다.



Movie Info

개봉 2020.10.28. 국가 미국
 등급 12세 관람가 러닝타임 102분
 장르 드라마
 사진출처: 제이앤씨미디어그룹

한 인간의 고뇌

영화 <테슬라>는 성공과 실패, 사람들의 인정과 외면을 반복해서 겪었던 테슬라의 이야기다. 전기 기술 도약의 시대, 테슬라는 에디슨의 가장 중요한 경쟁자였다. 두 사람의 상반된 성격과 스타일, 직류와 교류로 전기 전쟁이라 불렸던 경쟁 에피소드는 널리 알려져 있다. 테슬라는 영화로 다뤄지기 충분한 드라마가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영화 <테슬라>는 테슬라의 전기(傳記)도 아니며, 에디슨과의 경쟁이나 영웅적인 과학자의 면모를 강조한 드라마도 아니다. 이 영화는 1884년 테슬라가 에디슨의 회사에 입사한 시절부터, 1900년 J.P. 모건의 무선 송전탑 연구비 지원이 철회되던 때까지를 다룬다. 영화에는 에디슨이나 모건처럼 유명 인사와의 인연을 비롯해 시카고 만국 박람회, 나이아가라폭포의 수력발전소 건설,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과 막대한 로열티 포기, 콜로라도의 테슬라코일 실험실 등 이 시기 테슬라의 삶과 인류의 전기 기술 발전사상 굵직한 사건들이 대부분 등장한다. 그러나 이 영화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테슬라의 위대한 업적 보다는 그의 깊은 고뇌다. 그가 그리는 기술과 미래 세계는 그의 머릿속에선 선명했지만, 주위의 평범한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키진 못했다. 그렇게 그는 외톨이였다.



인간 해방 패러다임의 기술

그러나 그의 천재성은 분명 인류의 차원에서 축복이다. 테슬라는 전기를 발전(發電)하고, 전송하고, 활용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고안했다. 여러 개의 코일로 자기장을 만들고 교류 방식을 통해 전기의 전환과 배전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전동기와 무선통신이 인간을 불필요한 노동에서 해방시킬 것으로 생각했다. 확장 변압기와 송전탑이 있다면 늪지나 사막처럼 황폐하고 척박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선 기술이 상용화 되면 세상의 모든 가치와 관계는 변할 것이라 여겼다. 놀랍게도 그의 이런 생각과 시도는 천년 뒤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상상력 더하기

그런데 영화 <테슬라>에는 이상한 장면들이 있다. 영화에는 테슬라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녀는 사건을 설명하는 화자의 역할도 한다. 이상한 것은 종종 그녀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자신이 영화 속 인물이 아닌, 마치 우리와 동시대에 사는 것처럼 구글 검색을 하거나, 인물의 과거와 미래, 사건과 기술에 대한 21세기의 평가 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실제론 존재하지 않은 통쾌한 상상을 하기도 한다. 어쩌면 그녀는 영화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그녀의 말과 행동과 상상은 테슬라 이야기를 단순한 과거로 보이지 않게 한다. 그녀로 인해 과거는 현재와 끊임없이 연결되고 새롭게 인식된다. <테슬라>는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꾼 기술과 과학자를 회상하는 동시에, 과거를 통해 현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영화다. 🧠





부광돼지국밥 가게 입구



1 돼지국밥과 수육 한상차림
2 솥에서 우러나고 있는 육수

맑고 깔끔한 국물이 일품인 부광돼지국밥

예전부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노포 맛집들이 즐비해 있는 중앙동 일대. 지하철 중앙역 11번 출구로 나와 두 골목 아래로 내려가 길을 따라 걷다보면 노포 맛집 중에 하나인 부광돼지국밥을 찾을 수 있다.

1984년부터 중앙동을 지켜온 맛집

부광돼지국밥은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 박대건 사장님의 부친이 광양에서 부산으로 이사해 온 후 자갈치 시장에서 유명한 돼지국밥집에서 일을 하면서 돼지국밥 요리 실력을 쌓고, 본인만의 노하우를 더해 1984년 장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광복롯데백화점 자리인 예전 부산시청 주변에서 시작한 부광돼지국밥은 지금의 위치로 이전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부광이란 상호명은 부산의 '부'와 아버님의 고향인 광양의 '광'자를 따서 지었다고 한다.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국밥의 맛

주 메뉴인 돼지국밥은 전통 조리방식인 토렴식으로 만든다. 특히 돼지국밥의 국물이 맑은데, 맑고 깔끔한 국물을 만들기 위해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는데 심혈을 기울인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국밥을 맛보고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라고 말한다. 박대건 사장님은 부광돼지국밥의 국밥은 돼지고기 잡내를 제거해 아이부터 어른, 외국인 모두가 다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말한다.

맛의 비결은 좋은 재료와 정성

돼지고기 잡내 제거와 함께 사장님이 조리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장님은 평소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국밥을 만든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육수를 몇 시간 동안 만들고, 양파, 고추, 마늘, 정구지 등을 손질하는데 모든 재료는 국내산이며, 돼지고기도 잡내가 적은 어린돼지를 사용한다. 각두기, 감치, 양념장은 직접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처음 부친에게 배운 조리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원래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늘 노력한다.

백종원의 3대 천왕도 다녀간 맛집

부광돼지국밥은 예전부터 중앙동 일대에서는 소문난 맛집이었다고 한다. 지역의 주요 기업인 은산해운항공의 양재생

2016년 백종원의 3대천왕 출연당시 사진



3 부광돼지국밥 박대건 사장님
4 부산지역 대표맛집으로 선정된 기념명판

회장은 부광돼지국밥의 오랜 단골로 지금도 일주일에 1, 2회는 방문해서 식사를 하고 간다고 하며, 중앙동 일대의 기업 직원들과 관공서 직원들이 단골로 찾는다. 2016년 '백종원의 3대천왕'에 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더욱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고객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음식점으로

박대건 사장님은 주방과 내부 인테리어를 개선하여 손님들이 식사하기에 더욱 좋은 환경으로 식당을 바꾸어갈 계획을 전했다. 또한 아버지가 일구어온 가게를 이어받은만큼 앞으로도 꼭 계속 시민들의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부광돼지국밥으로 역사를 이어 갈 것 이라고 밝혔다.

부광돼지국밥 가게 내부





사망 원인 6위, 급증하는 당뇨병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준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사망 원인 중 당뇨병은 6위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 당 17.5명이 당뇨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다. 2019년 사망원인 7위 인구 10만명당 15.8명이 사망한 것을 보면 불과 2년 만에 큰 폭의 증가를 보인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국 연령표준화 사망원인 현황에서 당뇨병이 10만명당 11.3%라는 수치를 나타내며 전국 시도에서 2위를 차지했다. 더 이상 당뇨병은 간단히 생각할 질환이 아니다.

1 당뇨병, 정체 뭐야?

당뇨병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포도당이 혈액 안에 쌓이는 고혈당을 현상으로 하는 대사 이상 질환이다.

당뇨병은 주로 삼다(三多)의 증상을 보인다.

- ① 혈당이 계속 오르면 우리 몸은 체내의 당분을 내보려고 하여 소변을 자주보게 된다.(다뇨)
 - ② 소변으로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므로 갈증이 생겨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다음)
 - ③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분(포도당)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되어 허기가 저 계속 먹게 된다.(다식)
- 이외에도 영양분(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 몸이 피곤하고,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어 염증이 잘 생길뿐더러 잘 낫지 않는다.

2 당뇨 진단 기준?

- ① 당화혈색소 6.5% 이상
- ② 공복혈당 126mg/dL 이상
- ③ 경구포도당 부하검사 2시간 후 혈당 200mg/dL이상

급증하는 당뇨 인구, '당뇨병' 바로 알기

글_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울경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

오래 사는 것 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요즘. 더 이상 당뇨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건강 통계를 보면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사망원인 6위에 오른 당뇨병은 우리에게 흔하면서도 두려운 질환이다. 당뇨병이 50대 이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병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최근 당뇨병 진단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타나고 있다. 100세 시대,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당뇨병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당뇨병, 관리가 꼭 필요할까?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없을 수 있어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인의 혈당을 인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합병증 때문이다.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 혹은 만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상당히 커진다. 뇌, 심장, 위, 장, 콩팥, 눈, 다리, 배뇨장애 등 당뇨병이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는 부위와 증상은 다양하다. 그렇기에 당뇨병은 개인의 상태에 맞는 약물 치료, 운동, 식습관 등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4 당뇨병 관리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혈당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당뇨병을 인지하지 못하면 혈당 조절이 이뤄지지 않아, 합병증의 위험성을 키운다. 인지가 최우선이고 이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위험을 조기에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검진,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하여 항상 관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당뇨병의 골든타임? 본인의 혈당을 인지하는 바로 그 순간이다. 📌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한 Tip



음식 섭취

- ① 요리 시 설탕 사용은 가급적 피한다. 설탕은 혈당을 올림으로 설탕대신 식초, 겨자, 생강, 후추 등 향신료, 양념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 좋다.
- ② 과일 다량 섭취는 자제한다. 과일은 당질 함량과 열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 정해진 분량만큼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하루에 주먹 크기 정도의 섭취를 권장하고, 밤보다는 오전, 오후 간식으로 소량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 ③ 지방도 선택해서 섭취한다. 심장에 좋지 않은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이 다량 함유된 육류, 가공육, 내장류 섭취는 줄이고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을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므로 일주일에 2회 정도 등 푸른 생선을 먹는 것이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된다.
- ④ 혈당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
 - 현미: 당뇨 관리의 첫 단계로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을 꾀는다. 현미는 쌀눈이 남아 백미에는 없는 영양소가 보존되며 흡수 속도도 느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 해조류: 해조류 속 식이섬유가 당이 몸에 천천히 흡수 되도록 도움을 준다. 다만 과하게 섭취하면 요오드 섭취량이 많아져 갑상선 질환 위험이 있으니 유의!
 - 콩: 연구결과에 따르면 콩만 많이 먹어도 당뇨병 확률이 35% 감소한다고 한다. 콩류는 인체 에너지 생산과 대사 조절을 돕는 영양분이 풍부하다.



적절한 운동

- ① 운동을 하면 종류에 상관없이 혈당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꾸준한 운동은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혈당 조절은 위해 하루 30분, 주 5회, 주 150분 운동을 권장한다. 하지만 몸 상태에 따라 어떤 운동, 강도가 좋은지는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담당 의사와의 상담은 필수이다.
- ② 운동의 강도는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정도로 하되 무리한 자극을 주지 않는 정도의 운동이 좋다. 더불어 5-10분의 준비운동을 반드시하며 체력에 따라 운동량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
- ③ 당뇨의 경우 말초신경 감각이 무뎠으며 손, 발끝 등 몸에서 먼 부위의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를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 하는데, 이를 느끼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과사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운동 전후 반드시 손, 발을 깨끗이 씻고 작은 상처라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벚꽃 엔딩

봄날, 반가운 조종의 노래

글_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작가

내가 가르치는 대학의 1학년 중엔 스물네 살 남학생이 있다. 그 학생은 자기 별명이 ‘어르신’이란대. 좌중 학생들이 온몸으로 까르르 웃는다. ‘어르신’도, 그를 둘러싼 학생들도 모두 숨털이 보송보송, 옛되고 파릇 파릇하다. 바야흐로 봄이기 때문이다. 3년 만에 되찾은 봄. 그동안 두 번의 봄은 기억에 없다. 작년, 재작년 봄에 우리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던 걸까. 터널의 시기, 울증의 시기였다. 우리는 정말 잘 견뎌왔다. 다 함께 큰 전쟁을 치렀다. 우리에게 따뜻한 전우애가 생겼다.

우리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온 사람들처럼 인사를 나눈다. 그동안 잘 지냈냐고, 정말 오랜만이라고 선뜻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기도 한다. 얼마 만에 잡아보는 타인의 손인가.

거의 1000일만에 마주한 맨얼굴은 낯설다. 그동안 마스크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인식하지 못한 사이, 급속하게 시들어간 것 같다. 매일매일 집에서 거울을 봤건만, 바깥세상에서 남들 눈에 비칠 내 얼굴을 보는 것은 새삼 또 다르다. 내가 낯설어지는 순간이 잦다.

그렇더라도 봄바람의 유혹은 떨칠 수 없다. 봄별과 바람이 결합하면 온몸에 화학작용이 일어난다. 마음은 설레고 발걸음은 어딘가로 향하려 반란을 일으킨다. 벚꽃잎이 눈처럼 떨어지면 또 이런 축복이 없다.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이토록 아름답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 이 노래, 2012년에 나왔건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고 들으니 새삼 낯설고 새롭다.

‘봄바람 휘날리며

흘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들이 걸어요 (...)

그대여 우리 이제 손 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니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봄에 벚꽃잎 샤워를 만끽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손해다. 아무 조건도, 노력도 없이 신비스러운 행복감으로 가득찰 수 있는 기회다.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다. 공짜 행복이다. 조건 없는 행복이다. 행복이란 이렇게 무조건 쳐들어 오는 것이라는 진실을 깨닫게 된다. 애써 얻는 것은 행복이 아니다. 성취감도 행복은 아니다. 공짜로 무작위로 온몸을 포섭하는 것만이 행복이다.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이 행복이다. <벚꽃 엔딩>은 조종의 노래, 건강한 조종을 유발하는 노래다. 봄바람과 조용하여 작은 축포 같은 설렘을 터뜨리는 노래다.

4월에 받은 햇볕만으로 올 한해 에너지를 가동할 수 있을 듯하다. 역시 조종이다. 옆 사람과, ‘알 수 없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조종이다. 이 조종은 건강한 것이다. 아직 조종의 세계로 진입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 손을 잡고 함께 거리로 나와 이 햇볕의 소식을 전하고 싶다. 4월은 그렇게 느슨한 우정의 거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안다, 이런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만 끝나면”으로 시작하는 기원을 많이도 해 왔다.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끝’이라는 형식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기대보다 훨씬 더 큰 기쁨, 감사하는 마음을 선물로 받았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후위기가 있고, 자본주의 부작용을 앓고 있으며, 양극화는 해소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이슈에 휘둘리고 있지만, 햇볕이 쏟아지는 이 순간만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다. 이 순간을 누린 자만이 이 산재한 문제들을 힘차게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다.

오늘 점심엔 돼지국밥 한 그릇 마시고,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손에 들고, ‘알 수 없는 친구들과’ 봄별 이 거리에서 이 낯설고 신비스러운 행복을 경험해 보자. 봄은 길지 않다, 우리 인생처럼. 🌸

Story of 캡틴장

START

제임스 본드 같이 멋진 분위기의
캡틴장을 보여주는 캐릭터
by 웹툰작가 배민기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의 날 기념식(2023.3.6.)

납세야 말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납부하는 가장 큰 기부활동입니다.

차세대기업인클럽 회장단 예방(2023.3.6.)

부산 경제의 미래는 차세대 기업인~ 사랑합니다^^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2023.3.7.)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 해주실 꺼지여^^

제12기 글로벌경제인과정 개강식 및
제16회 글로벌경제인 넥스트포럼 (2023.3.7.)

12기 원우 여러분 글로벌 경제인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사상기업발전협의회 제20차 정기총회(2023.3.13.)

사상 지역 기업인 여러분의 힘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주)에스티에스 로보테크 시찰(2023.3.14.)

부산 기업이 만든 로봇! 아주 놀랍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명지어린이집 방문(2023.3.16.)

우리 아이들이 부산의 미래입니다.



음악사로 풀어 본 2030부산세계박람회

글_ 김지윤 서울대 음악박사, 소리연구회 소리 숲 대표



태평양을 건넌 조선 궁중악사들

1893년 고종의 명을 받은 10명의 궁중악사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박람회에 참가한다.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해 일본을 거쳐 미국 횡단열차를 타고 한달 반 만에 도착한 곳은 미국의 신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한 시카고 만국박람회였다. 서구에서 개최된 박람회 참가는 일방적으로 선진 문물을 체험하는 외교사절단과 달리 참가국과 상호적인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각국의 박람회 전시 부스는 시각적 전시와 함께 청각적 공연이 기본 구도였는데, 조선의 세계박람회 참가는 근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술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대신 예술적 가치가 높은 공예품과 격조 높은 공연을 선보임으로서 조선은 독창적인 언어와 음악 문화를 가진 문명국임을 알리려는 고종의 집념이 담겨있었다. 실제로 개회식 직후 미국 클리블랜드 대통령 앞에서 궁중악사들이 연주한 음악은 '조선의 전통음악이 동양의 고전음악 중 가장 뛰어나다'는 호평과 함께 상까지 받게 된다. 왕이나 왕족들만 들을 수 있었던 왕실 음악은 이후 1878년 파리엑스포에서 에디슨의 축음기가 소개된 이후 대한제국 시기에 축음기가 우리나라에 보급 되고 경성방송국이 개국하면서 사람들은 신분에 관계 없이 궁중음악 뿐 아니라 판소리 명창의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 보편적 대중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싹을 틔우는 계기가 되었다.

김지윤 대표 주요경력

- 서울대 음악박사(D.M.A)
- 국가무형문화재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 (현)소리연구회 소리 숲 대표
- (현)국제신문 음악 칼럼 필진
- 저서 <김지윤의 음악산책> 외 다수
- 음반 <피리, 클래식을 만나다> 외 다수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임지척 오디션 최우수상 수상(2022)

피란수도 부산 문화예술의 르네상스

바다를 품은 부산은 우리 역사의 위기 때마다 큰 힘을 발휘했던 중요한 역사성을 지닌 도시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옥포승첩, 당포승첩, 한산대첩으로 대승을 거둔 뒤 4차 출정길에서 적의 본진 부산포를 선제공격하여 한반도 진입로를 차단한 부산대첩, 한국전쟁 당시 인구 30만의 도시가 100만 피난민을 수용하고 임시수도로 그 역할을 했던 저력의 도시가 바로 부산이다. 전국 각지에서 부산으로 피난 온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로 넘쳐나며 그야말로 다양한 음악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문화 예술의 르네상스 시기였다. 국립 국악원이 피란수도 부산에서 1951년에 처음 개원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단절 위기의 국악 명맥을 이을 수 있었다. 윤이상, 금수현, 이상근, 한형석 등 많은 서양 음악가들도 해방기 부산의 음악교육 및 예술의 정착과 보급에 힘을 쏟았다. 또한 대중가요 작곡가와 가수들의 활약으로 부산은 대중음악의 메카로 전성기를 맞기도 했다. 이렇듯 1950년대 피란수도 부산은 전통음악과 클래식 음악, 그리고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악을 품으며 지금의 부산 문화예술의 근간을 확립하게 된 시기였다.

세계박람회는 최첨단 기술 뿐 아니라 문화교류의 플랫폼

서양음악사에서 대표적인 인상주의 작곡가인 C.드뷔시는 에펠탑이 세워졌던 1889년 파리만국박람회에서 인도네시아

자바의 전통타악기 가믈란 합주를 접한 뒤 이국적인 음향에 매료되어 판화(Estampes)라는 피아노 독주곡을 작곡하게 된다. 드뷔시에게 만국박람회는 오리엔탈리즘의 새로운 예술 영감으로 전통적인 작곡기법을 벗어나 전통과 현대를 잇는 혁신적인 음악적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세계 박람회는 최첨단 기술 뿐 아니라 문화교류의 플랫폼으로서의 세계 수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나누는 경제·문화 올림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K-풍류로 만국을 품을 시간

K-팝과 K-컬처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의 중심에 있다. BTS의 '대취타' 노래 제목으로 인해 세계 수많은 팬들은 한국 전통음악과 문화에 대해 궁금해 하고, 이날치의 '뽀내려온다'로 판소리 수궁가 한 대목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다. 130년 전 조선의 궁중악사들의 예술혼을 이어 2030부산세계박람회에서는 부산의 멋과 흥이 담긴 풍류를 보여줄 때다.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심사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토착화된 놀이 문화를 보존이 아닌 현재도 다함께 즐기고 있다는 점이였다. 첨단 사회가 될수록 공동체의 가치가 더 강조되는 이 시대에 '함께'의 문화가 살아있는 귀한 문화 자산을 초석 삼아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위한 세계와 하나 되는 K-풍류의 멋과 흥을 알릴 때가 바로 지금이다. 🇰🇷



첨단설비와 최고의 기술로 끊임없는 혁신을 향해가는 COIL SERVICE CENTER

진양금속(주)

LG



진양금속 회사 전경



① 진양금속 공장 내부 전경
② 진양금속의 가공·생산라인



2023년 현재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쓰이는 백색 가전은 기술력 상승과 함께 외관의 품질 및 디자인이 곧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백색가전은 국내 및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특히 고급스러운 Steel 소재의 외관이 인기의 비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진양금속(주)은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Steel 소재의 제품을 최고의 품질로 가공하는 지역 대표 기업이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해온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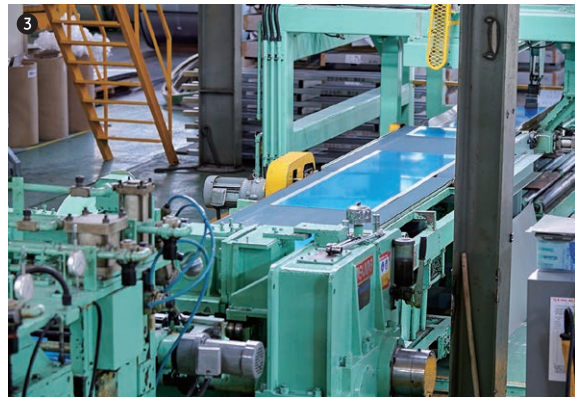
진양금속의 안재효 회장은 20대 때 철강가공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일을 할수록 철강가공이라는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철강가공 회사에서 일을 하며 철강에 대한 노하우를 익히다 27세이던 1990년 진양금속을 창업하게 된다. 1993년 창업한지 4년차가 되는 해에 LG전자가 타 업체에 발주한 물품을 납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던 것을 포스코 대리점의 부탁으로 일을 맡아 성공적으로 추진한 뒤부터 진양금속의 기술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를 기점으로 30년간 지속적으로 LG전자와 파트너십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진양금속은 현재 LG전자에서 사용하는 STS강, 컬러강판 등의 70%를 가공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진양금속 안재효 회장

고객의 수요에 맞춘 다품종 및 고급 강판 생산

진양금속은 철강 메이커 업체들이 직접 다루기 힘든 정밀가공 및 다양한 사이즈의 Steel을 생산 및 가공한다. 특히 진양금속은 국내 유일 하계 가전 Steel 전강종에 블랙코팅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컬러강판, 알루미늄 도금강판, 아연도금 강판 등 모든 강종에 대한 가공 설비를 강종에 특화된 라인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가공된 Steel의 표면 검출능력, Burr(버), 반곡, 대각, 길이 등 품질관리에 있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진양금속의 주요 고객사로는 LG전자, 삼성전자, 월풀, 일렉트로닉스, 하이얼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태국, 멕시코, 브라질, 인도 등에 지속적으로 가공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3 가공생산라인
4 가공생산라인에서 작업중인 진양금속 직원들

최고의 설비와 최상의 조건으로 가공한다

진양금속은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관리를 위해 일본 요네모리사의 슬리터, 세어 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전제품 내외장재의 고급화를 위한 표면 연마시설은 국내 최고의 설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진양금속은 단순 원소재 가공부터 표면 구현, 보호필름 작업까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스톱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아울러 모든 설비는 강종에 특화된 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들 모두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강종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안되는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진양금속의 김해주촌 본사 공장 한 가운데에는 ‘안되는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라는 슬로건이 걸려있다. 이는 안재효 회장의 경영 철학을 나타내는 중요한 한마디다. 안재효 회장은 뭐든지 하려고 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며,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번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면 목표를 달성할 때 까지 꾸준히 달려간다. 이러한 안재효 회장의 철학은 지금의 진양금속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재효 회장은 회사의 매출이 2,000억을 돌파한 지금도 여전히 아침마다 유통회의, 생산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이를 통해 기술 발전과 생산성 증가를 위한 공정의 효율화를 이끌어 낼 방법을 고민한다.

생산공정을 확인하는 진양금속 직원



저희 진양금속(주)은
다품종 소량의 STS강판, 컬러강판 및
기타 냉연강판 등을 첨단설비와
우수한 기술로 가공 생산하여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재효 회장과 진양금속의 임직원들

직원들과 소통하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기업

진양금속은 지역의 중견기업에선 보기 힘든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해외연수를 함께 해왔다. 그리고 매출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금도 매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안재효 회장은 평소 화이트데이, 발렌타인 데이, 빼빼로 데이 등 각종 기념일에도 직접 사탕과 초콜릿 등을 사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다고 한다. 이는 안재효 회장이 평소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내 분위기를 보여주듯 진양금속은 전직원의 70%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이다.



삼천만불 수출의 탑 오백만불 수출의 탑 오천만불 수출의 탑

사업다각화와 해외 진출을 향해

진양금속은 곧 매출 3,000억을 앞두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백색가전 분야의 철강 제품에 장인기업으로 성장해왔다면 이제는 자동차, 조선기자재, 자동차 배터리 분야까지 제품 생산을 넓혀 갈 것이라고 한다. 이미 가장 복잡하고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백색가전을 위한 철강 가공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만큼 다른 분야로의 사업 확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멕시코, 태국, 베트남 등에 현지에 공장을 짓고 생산설비를 갖춰 바로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



산업포장

석탑산업훈장

벤처 천억기업 기념패



행복한 순간을 나누는 (주)푸드트래블

푸드트래블 박상화 대표는 20대 중반, 경영학을 배우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항상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던 그는, 우연히 영화 ‘아메리칸 셰프’ (2015)를 보고 푸드트럭이 전하는 에너지와 행복에 반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 전 세계 20여 개국 50곳의 도시를 여행하며 푸드트럭을 직접 체험했고, 푸드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으로 떠나 푸드트럭 1위 브랜드인 ‘유타컵밥’에서 일하며 푸드트럭 앞 고객 행복을 눈 앞에서 직접 경험하고 확신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박 대표는, ‘벨지움트래블’이라는 푸드트럭을 런칭하며 본격적으로 푸드트럭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되었다.



박상화 대표의 유타컵밥 시절



1 기프트럭 행사현장
2 3 여행사진

코로나 위기에 발견한 시장

첫 시작은 축제 기획 사업이었다. 전국의 행사를 다니며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푸드트럭을 활용한 축제/공연 대행을 시작했다. ‘한·아세안 푸드스트리트’라는 큰 축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회사의 방향을 잡아가던 와중,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다. 전국의 축제나 행사가 모두 중단되며 영업기회와 매출이 바닥을 찍었다. 이때가 사업 이후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말하며, 이후 회사의 방향과 푸드트럭이라는 비즈니스에 대한 본질을 근본부터 다시 고민했다. 배달과 식당 접근성이 좋은 한국은, 미국의 푸드트럭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방법이 필요했다. 한편 이 시기에 연예인 커피차를 보내는 문화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다. 마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의 푸드트럭, 세계를 여행하며 직접 느낀 ‘고객 행복’이라는 본질에 집중하면서도 비즈니스를 한국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활로였다. 이후 푸드트래블은 회사의 방향을 바꿔 지금의 ‘기프트럭’ 서비스를 런칭하고,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한 B2B 서비스로 탈바꿈했다.



기프트럭



푸드트래블의 기프트럭

새로운 기업문화로 자리잡은 ‘기프트럭’

2021년 ‘기프트럭’을 본격적으로 런칭한 이후, 오직 ‘고객 행복’이라는 가치에 집중하며 서비스를 발전시켜왔다. 한 행사에 100대의 푸드트럭을 동원할 수 있을 만큼 전국의 푸드트럭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고객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갖췄다. 현재는 1,200여 개의 고객사, 이용 고객 수 100만을 달성한 B2B 전문 회사로 성장했다. 기프트럭 서비스는 새로운 복지/새로운 기업문화로 자리 잡아, 국내 10대 기업을 포함한 수많은 곳에서 ▶사내복지 ▶고객사 감사 ▶프로모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 번

서비스를 경험해 본 기업의 재구매율도 높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도 고무적이다. 푸드트레블은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며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대비 40배 성장을 이뤄냈고, 올해는 100억 대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원도 총 18명으로 크게 늘었다.

푸드트레블이 만들어내고 있는 가치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을 만듭니다’는 푸드트레블의 미션이다. 이들은 회사나 학교, 가족, 친구 등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을 위해 일하고 있다. 미션을 바탕으로, 기프트럭 서비스는 공감대가 넓은 음식을 매개로 마음을 전하고 관계와 유대를 만들고자 한다. 서비스의 핵심은 “고객의 마음을 더욱 ‘와우’하게 전하는 것”에 있다. 고객사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임직원 혹은 학생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친구나 가족에게 축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등 기프트럭은 푸드트럭이라는 채널을 통해 맛있는 음식과 이벤트를 선물하고, 보내는 이의 마음과 함께 즐거운 순간을 전하고 있다.



- ① 기프트럭을 받은 고객들이 웃는 모습
- ② 부산상공회의소 기프트럭 행사 모습
- ③ 기프트럭 음료전달

최고의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푸드트레블은 구성원 모두가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믿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기업이다. 이들은 단순히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강점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박 대표는 최고의 복지는 좋은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고객중심’, ‘성장 마인드셋’, ‘원팀 원스피릿’, ‘공정과 비판’이라는 핵심가치 아래 최근 퍼블 문화 1.0over을 만들어 조직문화를 더욱 탄탄하게 정립했다. 구성원들의 성장을 위해 ‘성장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업무 효율을 위해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하여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에도 구성원 간의 유대를 위해 반기 1회 여행, 피크닉, 체육대회 등 구성원들과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에는 목표 매출 달성 기념으로 전사원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이처럼 푸드트레블은 구성원 상호 간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인재 양성소로 발전 중이다.



파트너 푸드트럭과의 상생

전국의 푸드트럭 사업자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푸드트레블은 이들과 상생하며 푸드트럭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중이다. 기프트럭은 공식 파트너트럭 서비스인 ‘기프트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플랫폼과 푸드트럭 사업자의 역할 분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기프트럭의 적극적인 고객 유치로 기프트즈는 새로운 영업기회를 제공받고, 마케팅 부담의 완화로 현장 운영 및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기프트럭은 퀄리티가 보장된 트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행사 운영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기프트즈에겐 수익 극대화, 기프트럭은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윈윈 구조이다. 이 외에도 IT기반 자동화 프로그램 도입, 로컬상품 MD 등 푸드트럭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푸드트레블이 꿈꾸는 푸드트럭 시장의 미래

푸드트럭은 일상 공간을 특별한 순간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푸드트럭을 통해 전하는 음식은 마치 페스티벌에 온 듯한 기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 푸드트레블은 이러한 푸드트럭이 일상 속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을 꿈꾼다. 친구나 부모님 생일에 평범한 선물이 아닌 특별한 날 평생 잊지 못할 푸드트럭을 선물하고, 기프트콘으로 푸드트럭을 주고받는 날을 만들고자 한다. 나아가,

푸드트레블 구성원



기프트럭과 함께 한 기업들

유통&물류	제조 건설	IT
CJ대한통운	SAMSUNG 삼성전자	kt
SHINSEGAE	HYUNDAI	NAVER
롯데글로벌로지스	LG전자	SK텔레콤
coupang	POSCO	Ipsos
ups	코오롱	우미인생민들
DHL	Hanwha	MUSINSA
금융	공공기관	교육
KYOBO 국민은행	JOBA 행정경제위	대학내일
KB금융그룹	고용노동부	강남대학교
IBK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NHR
DB손해보험	한국전력공사	PAGODA 이력원
NPS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visang
KB국민은행	TSS 교통안전공단	서울대학교

다양한 곳에서 푸드트럭을 만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전 세계의 음식을 푸드트럭을 통해 맛볼 수 있는 ‘월드 스트리트 푸드페스티벌’, 그리고 ‘푸드트럭 전국 투어’, ‘한식 푸드트럭 미국, 유럽 투어’, ‘푸드트럭 테마파크’ 등 푸드트럭이 가진 매력으로 사람들의 일상에 행복하고 ‘와우’한 순간을 전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새로운 삶을 찾아나서는 리본(Re-Born) 세대



난 5060 리본(Re-born)세대

흔히 우리는 50세 이상을 중년 세대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5060 세대를 중년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리본(Re-born)세대'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부르고 있다. '리본(Re-born)세대'는 5060세대가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이나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함으로써 다시 탄생한다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리본세대라는 신조어는 5060세대가 은퇴 후의 삶을 쉬는 시간으로 보내기 보다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며 자아실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MZ세대가 가고 리본(Re-born)세대가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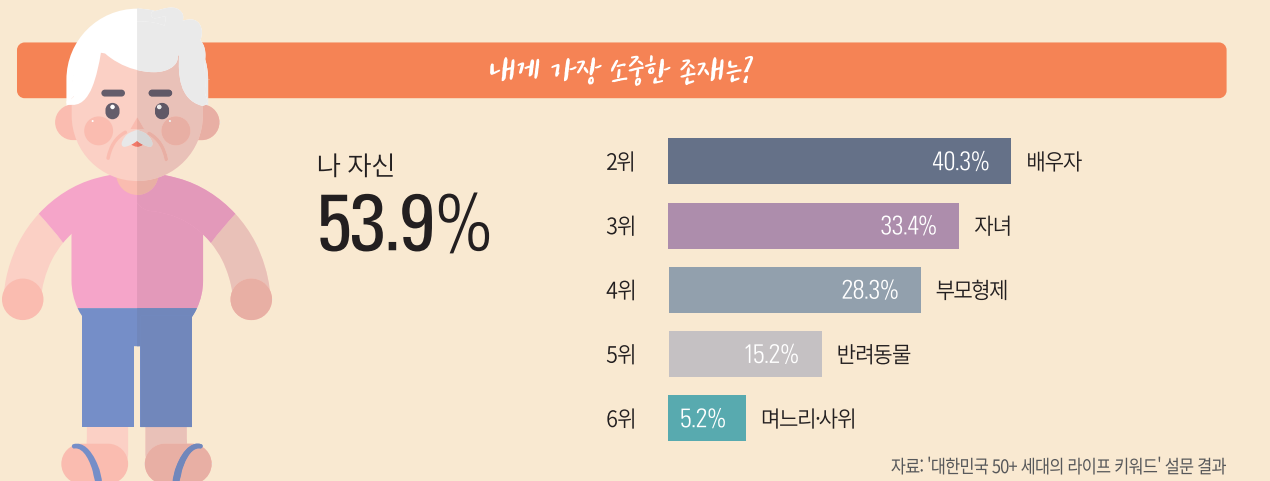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활동이 중심이 되면서 가장 주목 받았던 세대는 'MZ세대'였다. MZ세대는 유행에 빠르게 반응하고 유명 SNS 인플루언서들의 다양한 리뷰를 통해 자신의 취향과 맞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구독해왔다. 이러한 'MZ세대'의 소비 성향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커머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종식단계로 접어들고 오프라인 활동이 다시 늘어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소비층이었던 5060세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자녀들에게 의존했던 실버세대와 달리 지금의 5060세대는 자기 주도적이며 활동적인 성향을 띄고 건강, 소비, 문화 등 그 외의 여가생활을 즐기며 자기계발에 적극적이다. 이들은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뒀지만, 사회에서는

여전히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경제력도 상당하다. 올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디지털 친화적이고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자신의 취미에 과감하면서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리본(Re-born)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리본(Re-born)세대가 주목 받는 이유

우리나라의 연령별 세대는 대표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X세대, 밀레니얼세대, Z세대로 등으로 나뉘고 있다. 이중에서도 5060 연령대로 구성된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풍요로움을 성취하여 높은 자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소비자로서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 다양한 경험으로 세계화에 익숙하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디지털 환경에도 적응하여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제2의 삶을 위한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리본(Re-born)세대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아실현을 통해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찾아나서자
50~65세를 대상으로한 '대한민국 50+ 라이프 키워드 보고서' 조사에 따르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꼽는 설문에서 '나 자신'이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동안 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회사와 가정에 인생의 큰 비중을 두었던 리본세대의 새로운 행보가 주목된다. 🧠



주요경력

- 학력) 프랑스 파리 8대학 마케팅 석사 DEA/ 박사
- 현) aSSIST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전)Mplus 대표이사
- 전) IGM 세계경영연구원 교수
- 전) 오리콤 브랜드 전략 연구소장
- 전) 정부혁신브랜드위원회 위원

주요저서

- 17 SDGs In Action
- 마이크로 밸류
- 세상 모든 CEO가 묻고 싶은 질문들
- 우리는 그들을 신화라 부른다
- 세상의 중심 브랜드 만들기
- 브랜드 경영과 IMC
- 10가지 브랜드 법칙

양손잡이 혁신을 하라

글_ 문달주 서울종합과학대학원 교수

요즘 기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모두가 얘기한다,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어려웠던 적이 없었다고...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 모두 똑같이 얘기한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그렇다면, 기업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무엇이 다를까?

우선 기업들이 잘 나가다 어쩌다 망해 버릴까?

노키아, 코닥, 아이리버... 한때는 모두다 시장에서 1등을 했던 기업들이다. 이들이 망한 이유는 제품혁신에만 몰두해, 전략혁신에 실패한 이유이다. 노키아는 한때 전 세계 스마트폰을 50%까지 장악했던 피쳐폰 시장의 달콤함에 빠져, 자신들이 잘하는 피쳐폰에 매달려 좀 더 좋은 피쳐폰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 스마트폰이 나타나 한방에 보내 버렸다. 코닥도 똑같은 길을 걸었다. 1975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고, 디지털 이미징 특허만 1,000개 이상을 보유했지만, 자신들이 1등하고 있고, 지금 당장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필름시장에 취해, 디지털 카메라 시대를 대처 못해 망하고 말았다. 우리나라 브랜드인 아이리버는 세계 최초로 mp3기술을 개발했고 mp3플레이어로 한때 세계 No.1 회사였다. 아이리버의 '프리즘', '크래프트' 제품은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상품이 되었다. 그러나 아이리버가 좀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제품혁신에 매달리고 있을 때, 아이튠즈라는 새로운 음악 생태계를 만들어낸 애플의 '아이팟'이 나오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반면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한 기업은 무엇이 다른가?

넷플릭스는 1997년 리드 헤이팅스와 마크 랜돌프가 비디오 연체료에 불만을 품고 우편으로 렌트를 해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들고나와 성공하였다. 2005년 회원수가 420만명에 돌파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시네 매치(Cine Match)라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회원수를 4,00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미 이때 경쟁자인 블록버스터(BlockBuster)를 누르고 시장의 1등이 되었지만, 2007년 완전히 새로운 사업모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론칭해 비즈니스 판도를 바꾼다. 2012년 자체 제작한 하우스오브카드가 크게 히트를 치면서 콘텐츠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그리고 2016년에는 130여 개국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미디어 회사가 되었다. 반면에 한때 시장의 1등이었던 블록버스터는 2010년에 파산하였다. 넷플릭스의 지속적인 성장의 요인은 자신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제품혁신도 계속하지만, 지속적으로 전략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결과이다. 결국,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품혁신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제품혁신과 전략혁신을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 제품혁신은 현재 사업을 위한 경쟁이다. 그래서 효율성이 중요하다. 반면에 전략혁신은 미래를 위한 경쟁이다. 그래서 실험이 중요하다. 제품혁신을 통해 경쟁자와 성과의 격차를 만들어 나가고, 전략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지속 성장을 만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삼성이 폴더폰을 만드는 것은 제품혁신이고, 1974년 반도체를 시작한 것은 전략혁신이다. 삼성은 제품혁신과 전략혁신을 동시에 해 성공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품 혁신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전략혁신을 해야 한다.

제품혁신이 시장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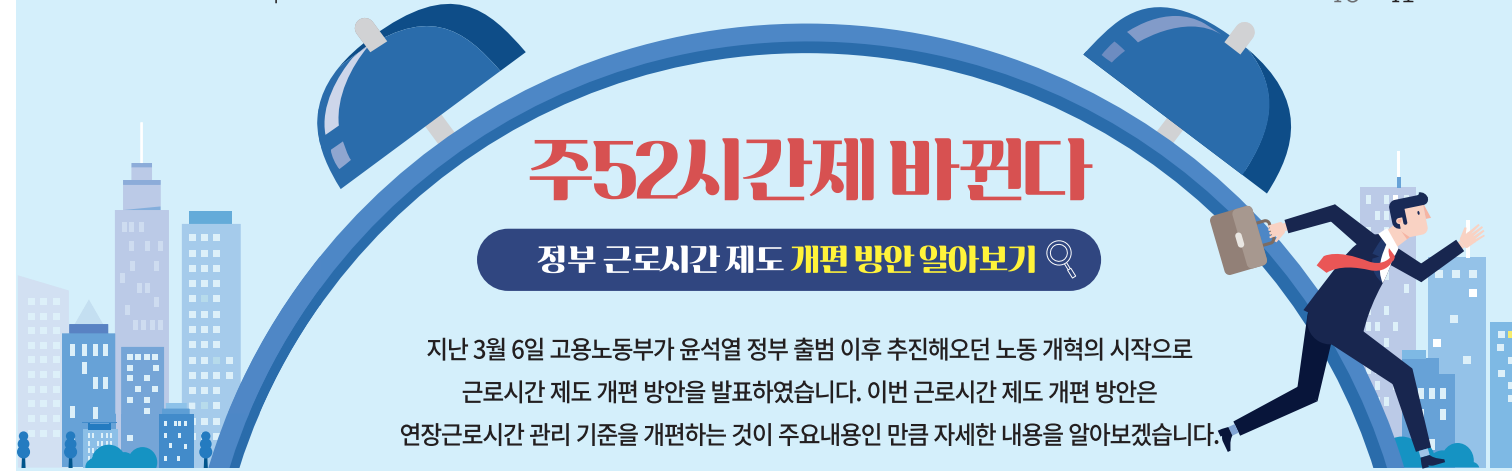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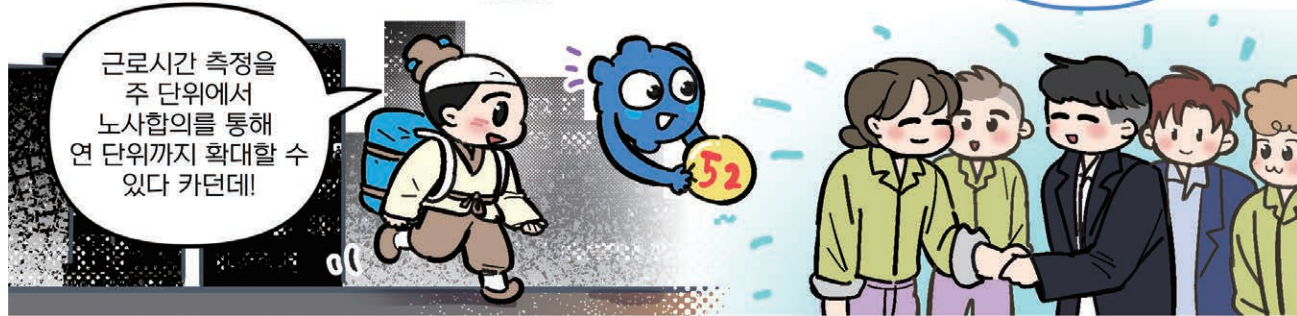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기술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제품혁신에 올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 혁신의 변화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보다 더 좋은 제품, 더 첨단인 제품을 우리가 만들면 고객은 당연히 사줄 거라는 착각을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지속성장에 실패한 많은 기업들이 최고의 기술을 가졌지만 시장에서 실패한 사례가 수없이 많다. 2014년에 구글이

최첨단 기술로 만들었던 '구글 글라스'는 애플 아이폰만큼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킬 줄 알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시장에서 철수했다. 2000년대 초반,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찬사와 함께 시장에 나왔던 '세그웨이'도 비싼 가격, 교통법규 논란을 일으키며 시장에서 실패했다. 그런데 이 제품은 2015년 중국 화웨이로 팔려서, 기존 것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가격도 훨씬 싼 나인봇 미니세그웨이로 출시해 시장에서 성공했다. 기술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다. 최근 핸드폰에 장착된 기술을 비교해 보면, 삼성의 기술은 애플을 압도한다. 폴더폰, 2억 화소 카메라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프리미엄 핸드폰 시장점유율 1위는 애플(57%)이고, 2위가 삼성전자(19%)이다. 기술이 기업 비즈니스의 성공을 꼭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캠브리지대 나비 라주(Navi Radjou) 교수가 말한 것처럼, 기술 혁신과 시장 성공은 생각만큼 밀접한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실제로 해보지 않고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짊어지지 말라는 것이다. 제품혁신과 전략혁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애플이 MP3 플레이어 시장에 뛰어들던 때 생각해보라. 원래 애플에서 아이팟은 회사의 사활을 건 프로젝트가 아니라 회사의 여러 전략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애플은 아이팟과 아이튠즈를 세상에 선보인 뒤 어느 정도 효과가 측정된 뒤, 적합하다는 판단이 선 뒤에 본격적인 홍보 나섰고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 시장을 장악했다.

기업가는 흔히 모험심 강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정말 좋은 기업가는 한 번 시도에 죽음을 무릅써야 할 정도의 위험은 절대 짊어지지 않는다. 여러 차례 실험하되 실패해도 괜찮은 '총알'을 여러 차례 쏘아보며 혁신을 얻은 뒤 '대포'를 쏜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수십년간 업계를 지배해 왔다는 제품의 자신감만 믿고 미래를 대처하지 못해 패배한 경우가 많다. 기업은 현재 성과를 창출하는 제품혁신을 진행하는 동시에 미래 가능성을 실현하는 전략혁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즉 양손잡이 전략 혁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 수 있다. 🚀





70년간 유지된 틀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관리에 초점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지난 70년간 주 기준으로 관리하던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 기준은 노사 합의하에 바꿀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운영 시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이번 개편의 요점은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 선택을 통해 한주에 12시간까지 가능하던 연장근무를 2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한주 최대 69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있을 추가 근로시간을 당겨올 수 있도록 하여 근무의 유연성을 높여 필요에 따라 특정 시기에 집중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늦은시간까지 추가근로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한주에 64시간까지만 추가근로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때는 미리 적립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간 휴가로 활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합니다.

기업들 근로시간 개편 환영하는 분위기

기업 현장에서는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납기 준수와 구인난으로 인한 경영여고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감이 일정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일이 몰리는 특정 기간 또는 일감이 적은 시기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론수렴을 통해 개편될 제도 보완 후 입법

개편안 발표 후 주당 최대69시간 근로에 대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어, 정부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현재 발표한 개편(안)을 보완하여 입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기업은 생산성 향상, 근로자는 소득 증대 등 노사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길 바랍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현행) 주 52시간제 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
(개편) 연장근로 총량 기준 감축

주 단위(최대6월)	최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월 단위(1개월)	52시간, 주 평균 12시간 (12시간x4.345주) 연장근로 총량 100%
분기(3개월)	140시간, 주평균 10.8시간 156시간(52시간x3개월) 대비 90%
반기(6개월)	250시간, 주평균 9.6시간 312시간(52시간x6개월) 대비 80%
연(1년)	440시간, 주평균 8.5시간 625시간(52시간x12개월) 대비 70%

주 69시간 근로 포함 근무 예시(월 단위)

구분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법정	40	40	40	40
연장	29	23	불가	불가

※ 24시간-11시간(근로일 간 연속 휴식)-1.5시간, 일 최대 11.5시간x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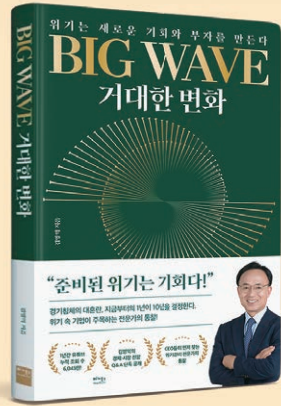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도서추천
영광도서
Since 1968

트렌드에 매몰될 것인가,
트렌드를 뒤집을 것인가?



대기업 총수들에게
직접 전한
위기관리의 해답!



거대한 변화
김영익 | 베가북스 | 17,500원

금리와 환율, 물가에 큰 충격이 찾아오고 혼란스러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양적완화의 혼풍을 만끽할 때 이 위기를 정확하게 예견한 사람이 있다. 바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김영익 저자다. 거시경제의 전문가로서 살아있는 시장을 읽는 김영익 교수의 설명을 듣다 보면, 경제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방법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2023년 최신 동향을 담은 ‘부의 대전망’이다. 우리를 위협하는 3고를 분석하며 개인에게 미칠 영향은 물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여기서 얻어낸 지표를 투자에 적용하는 법을 알아본다. 또한 단순히 전망을 통해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명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스쳐 지나갔던 변화를 읽는 방법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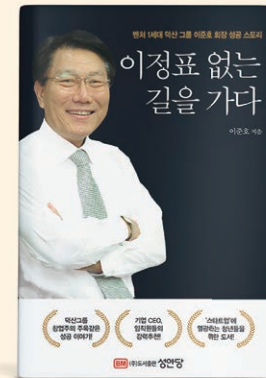
역발상 트렌드 2023
민병운, 정휘관, 진대연 | 부키 | 18,000원

모두가 한 방향만 바라보는 탓에 과도한 경쟁 위험에 놓인 지금, 역발상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2023년을 전망한 40여 권의 트렌드 책들을 분석하고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된 순으로 분류한 결과, ‘웹 3.0 > 경기침체와 불경기 소비 > 인공지능 > 알파세대 > 메타커머스 > OTT > 메타버스 > 선제적 대응 기술 > 세컨드 하우스 > 버추얼 휴먼 > 아바타 > 저출산 고령화 > 인덱스 관계 > 주4일제와 워케이션 > 디지털 헬스케어’ 총 15가지 메가 트렌드가 나왔다. 저자들은 이 메가 트렌드들이 안고 있는 한계점과 역효과를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짚어 보고 각각의 대안으로 15가지 역발상 트렌드를 제시한다. 메가 트렌드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역발상 트렌드를 발견하고 방향을 전환한다면,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젊은 부자가 선택한
경제경영 필독서



덕산그룹 창업주의
주옥같은 성공 이야기!



정해진 부의 미래,
배터리 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레버리지
롭 무어 | 다산북스 | 18,000원

이 책은 수많은 젊은 부자가 선택한 「레버리지」의 20만 부 돌파 블랙 에디션으로, 2017년 국내 출간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 경제경영 바이블로 자리 잡았다. 책에는 한 가지 비밀이 담겨 있다. 이 비밀은 5만 파운드 빗더미에 올라 방황하던 한 남자를 3년 만에 백만장자로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품고 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그 자본주의를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끊임없는 노동과 희생의 규칙을 깨뜨리고,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자본을 증식하는 새로운 부의 공식이다. 은퇴 후 생활을 위해 30~40년 동안 일에 파묻히는 것이 아닌, 매 순간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라이프스타일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사회의 명령에 속지 마라.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

이정표 없는 길을 가다
이준호 | 성안당 | 18,000원

벤처 1세대 덕산 그룹 회장이 평생 일구어온 성공 스토리를 담았다. 안정적인 직장을 퇴사한 후 덕산산업을 창업하고 조선 부품 제조 사업에서 시작하여 금속을 코팅하는 도금업에 도전, 또 첨단 기술로만 가능한 슬더볼을 생산하는 기술집약적 정밀산업인 반도체 소재산업에 도전, 나아가 디스플레이 분야 중에서도 첨단 OLED 사업에 도전하는 등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DNA인 향상지심(向上之心)을 몸소 실천하였으며 그 과정 하나하나를 자세히 공개했다. 성공한 벤처 1세대로서 어떻게 도전하고 혁신하여 성공했는지를 알려주고, 기업 활동을 하면서 평소 생각하고 실천했던 정도경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자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여 공감이 될 뿐 아니라 벤처기업을 시작하는 창업가들에게 생생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 배터리 레볼루션
박순혁 | 지와인 | 19,000원

대중들에게는 다소 생소했던 배터리 산업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부터 향후 10년을 좌우하게 될 미래 전망까지를 제대로 담은 책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나오기를 고대하던 여의도를 뒤흔드는 ‘뱃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의 책으로,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지식과 핵심 이슈들을 엄선해 담았다. 불확실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해진 부’, 미래에 올 수밖에 없는 부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배터리 분야이고, 그 핵심이 한국의 배터리 기업이다. 왜 글로벌 넘버원은 K 배터리 기업인 것일까. 배터리 시장에 대한 거짓은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일까. 어떻게 투자해야 배터리 산업이 열게 될 새로운 부의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책은 진실, 성실, 절실의 모토로 쓴 미래의 부에 대한 안내서이다. 

Busan Economic News

2023 04 April

(주)동원개발

장복만 회장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주)동원개발은 3월 3일 장복만 회장이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장복만 회장은 기업 활동을 통해 2019년 281억 6,100만원, 2020년 460억 7000만원, 2021년 259억 4500만원을 법인세로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꾸준한 고용 창출로 사회 전반의 실업률 해소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해 30억 기부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사재를 털어 30억원을 기부했다. 부산시는 3월 22일 시청 의전실에서 강병중 회장이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기부금 30억원을 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업인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사재를 털어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병중 회장은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를 앞두고 시와 정부 유치위 등이 벌이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는 뜻에서 사재를 털어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나시아

친환경 설비 기업 (주)파나시아 ESG경영 우수기업 선정

(주)파나시아는 3월 6일 동반성장위원회 'ESG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ESG지원사업을 전개한 결과 (주)파나시아가 총 64개의 ESG 진단 항목에서 준수율 95%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주)파나시아는 창업 초기부터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개발 공급하며 ESG의 환경 부문을 선도해왔다. 지난해에는 사내 ESG추진단을 설립해 ESG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주)파나시아 관계자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건전한 지배구조에도 집중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친환경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은산해운항공(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대형 현수막 게시

은산해운항공(주)은 3월 9일 중앙동 대로변에 위치한 은산베이 빌딩과 은산빌딩 2곳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고 밝혔다. 양재생 회장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의 유력 기업인으로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오고 있다. 은산해운항공(주) 양재생 회장은 "시민들의 엑스포 유치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게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내달 4일부터 7일까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

맥주기업 몰슨 쿼스와 파트너십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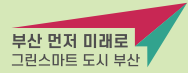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3월 13일 세계 3대 맥주 기업 몰슨 쿼스와 긴밀한 사업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 전략을 설정하기 위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팅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의 마케팅 활동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의 동향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연간 맥주 사업 운영 계획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앞으로도 몰슨 쿼스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세계 유명 주류의 현지화라는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의 비전을 성취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에어부산(주)

BIE 실사단 전용 엑스포 특별기 띄운다!

에어부산이 4월 초 부산을 방문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단의 귀국 이동을 위해 실사단 전용 부산→인천 특별기를 운항한다. 에어부산이 운항할 'BIE 실사단 전용 특별기'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현지 실사를 마친 후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각국으로 귀국하는 BIE실사단의 부산→인천공항 이동을 위한 환승 항공편이다. 해당 항공편은 실사단 8명만 탑승하는 특별 전용기로 운영된다. 에어부산은 BIE 실사단 전용 특별기 항공편의 편명을 'BX2030'편으로 결정하였으며, 운항 항공기도 지난해 9월 부산세계박람회 기원 특별 도장을 입힌 최신 항공기인 A321neo 항공기를 투입해 BIE 실사단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부산지역 조선·기자재업종 기업의 정규직 채용 촉진을 위해
취업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모집기간: 사업공고일 ~ 2023. 12.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 까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필수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연령 무관
- 지원요건: 2023. 3. 1. 이후 부산광역시 소재 「조선·기자재업종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조선·기자재업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차(C311-선박 및 보트건조업) 해당 기업
- ② 상기 업종 원청 매출액 비중 50% 이상인 조선기자재 기업
(2022년말 기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목록 확인)
- ③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원인 기업(회원증 사본 제출)

※ 2023. 1. 1. 이후 채용되어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금액: 근로자가 1년간 근속 시, 600만원 자산형성



신청절차

- 신청방법: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 매칭 플랫폼(www.bcci.or.kr/job/) 알림마당(공지사항)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이메일 제출(bcciplus@korcham.net)
- 진행절차: [신청서 제출] → [선정 통보] → [적립통장 개설] → [지원금 적립] → [만기사실 통보] → [만기금 지급]
- 문의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T. 051)990-7084~6 F. 051)990-7149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부품산업 시장개척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와 사하·강서·사상구가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지는
‘서부산 기계부품산업 행복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5년간 추진하는 대규모 일자리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2022. 3. ~ 12.
- 지원대상: 25개사, 서부산권(사하·강서·사상구) 소재 기계부품산업 기업
- 기업지원

채용 약정				지원 내용	
신규채용기간	채용직무	고용유지	채용인원	지원금액	지원분야
참여기업 선정일 (협약체결) ~ 23. 10. 31.	수출업무 관련 직무	1년	1명	1,250만원 한도	① 물류비 ② 해외마케팅비 ③ 기타 수수료
			2명	2,500만원 한도	

- ※ 기업분담금 20%. 단,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VAT) 기업 부담
- ※ 협약체결 이후의 비용 지출건만 인정
- ※ 지원분야내에서 지원금액 한도까지 지원

- 신청기한: 2023. 4. 28.(금) 限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신청구비서류(홈페이지 게재) 이메일(khsbcc@korcham.net) 사전송부 후 원본은 우편송부 요망
※(4735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번길 부산상공회의소 9층
- 문의처: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051-990-7198(7085))
- 기타사항
 - ① 업체선정: 부산상공회의소(1차평가), 평가위원회(2차평가) 서면평가 후 개별 통보 예정
 - ② 지원금 지급: 참여기업 선지출, 후정산(9~11월 말)



즐거로운 회원생활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2023년 4월)

부산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의 각종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실무능력 향상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재무제표 이해와 작성 & 재무비율 분석

일 시 4. 13.(목) 09:30 ~ 17:30 (1일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최재윤 세무사(세무그룹 의정 대표세무사)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 제	내 용
회계의 기초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와 재무제표 자산 및 부채와 자본, 수익과 비용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관계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의 요소와 표시방법 재무상태표의 이해 포괄손익계산서의 이해
재무제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분석의 목적 유동성분석: 기업의 단기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이해하고 실습한다. 안전성 분석: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여부를 평가해보고 실제 회사의 재무 제표를 이용하여 실습 활동성분석: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실습 수익성분석: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업이 얼마나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경영능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실습 성장성분석: 전기대비 당기에 얼마나 자산, 수익 등이 증가했는지를 평가

기초 세무실무의 이해 (소득세, 원천징수, 법인세, 부가가치세)

일 시 4. 14.(금) 09:30 ~ 17:30 (1일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이병현 세무사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 제	내 용
소득세 및 원천징수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 일반 원천징수 일반(소득자, 소득분류, 세액계산, 징수,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과세최저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납세의무자 세무조정 이해 세무조정실습
부가가치세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와 사업장 (등록,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고납부 (과세기간, 신고기간, 예정확정신고, 환급신고, 수정신고)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재화와 용역의 공급, 공급특례, 간주임대료)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포함) 영세율과 면세

2023년 개정세법 해설과 손익분기점 분석과 제품원가 계산 실무

일 시 4. 18.(화) 09:30 ~ 17:30 (1일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오종원 회계사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 제	내 용
2023년 주요 개정세법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경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2023년 개정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핵심 개정사항 해설
원가회계의 기본개념과 분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가회계의 기본 개념과 분류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방법 / 원가행태에 따른 분류
원가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가배부의 기준과 방법 설정 •계정별 원가배부와 부분별 원가배부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원가계산 방법 및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방법 •종합원가계산의 절차 및 계산방법(평균법)
표준원가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원가계산의 의의와 설정 •표준원가계산을 통한 원가차이 분석 방법 * 직접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원가차이 분석
제품별 손익분기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가·조업도·이익분석의 의의 •CVP분석의 기본개념과 과정 및 계산방법 •제품별 CVP분석 사례 풀이

구매자재관리 전문가 육성 단기과정: 상생을 위한 협력업체 관리실무

일 시 4.20.(목) ~ 21.(금) 09:30 ~ 17:30 (2일, 총14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목진환 대표
수강료 회원 154,000원, 비회원 308,000원

주 제	내 용
구매관리의 역할과 협력업체 관리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관리의 기능과 기업경영에서의 역할 •협력업체 관리의 의의와 중요성 •협력업체 관리에 필요한 구매관리자의 역량과 자질
협력업체 관리의 개요와 주요 관리 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업체의 개념과 관리의 의미 •협력업체 관리의 프로세스와 주요 고려 사항 •협력업체 관리의 발전 방향
신규 협력업체 발굴/선정절차 및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협력업체 선정의 중요성 •신규업체 선정절차 및 평가 기준 •계약체결의 중요성과 하도급법의 이해 •신규 협력업체 발굴 및 선정 사례
협력업체의 납기관리 및 품질관리 필요성과 주요 관리 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업체 납기관리 방안과 체크 포인트 •납기지연의 주요원인과 대책수립 •협력업체 품질관리의 중요성과 점검사항 •품질대책 수립을 위한 협력업체의 공정관리
기존 협력업체의 운영 및 정기평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업체의 운영 프로세스와 주요 관리 포인트 •정기평가의 중요성과 평가방법 •기존 협력업체의 효과적 관리 사례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 **대상자**: 12월 결산 법인('22년 귀속 법인소득)
-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 **신고·납부방법**: '23. 5. 2.까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 첨부서류 포함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
 - 첨부서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분명세서 등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하여야 함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 하여야 함
 - 안분신고 대상 법인만 “안분명세서” 제출,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 ※ 가장군 별도 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 안내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참고하세요

부산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 안내

층수	면적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월관리비(원)	비고
	임대	전용				
4층	60.0평 (198.0㎡)	36.0평 (118.8㎡)	78,000,000	780,000	1,560,000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별도

※ 문의 : 경영지원본부 남정호 과장대리 (051-990-7034)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 임대 안내

1F 대강당



좌석 수 : 360석(극장식)
면적 : 144평(476㎡)
현판규격 : 710cm×7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50,000원
1일	800,000원	냉·난방	140,000원

2F 상의홀



좌석 수 : 200석
면적 : 160평(528㎡)
현판규격 : 710cm×9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50,000원
1일	700,000원	냉·난방	140,000원

2F 국제회의장



좌석 수 : 100석
면적 : 99평(327㎡)
현판규격 : 500cm×8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8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80,000원
오후 14:00~18:00	35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20,000원
1일	500,000원	냉·난방	100,000원

2F 중회의실



좌석 수 : 70석
면적 : 57평(190㎡)
현판규격 : 500cm×8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2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70,000원
오후 14:00~18:00	28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00,000원
1일	400,000원	냉·난방	80,000원

회의실 사용료 할인안내

50% 회원업체(당연)

20% 회원업체(임의), 입주사, 3일(전일) 연속 사용업체

☎ 임대문의 : 경영지원본부 TEL 051.990.7150

엑스포 참가하러 왔소이다.



대한민국과 세계박람회 맨 처음 인연은 1893년 시카고박람회의 '조선관' 설치였습니다.

137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엑스포 사랑.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응원해 주세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단이 세계 곳곳에서 뛰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첨단설비와 최고의 기술로 끊임없는 혁신을 향하는
COIL SERVICE CENTER

진양금속(주)



JINYANGMETAL

COIL SERVICE CENTER로서 수요가들이 철강메이커에 직접 수주하기 힘든
다품종 소량의 스테인레스 강판, 블랙코팅 스테인레스 강판, 컬러강판, 도금강판, 냉연강판 등을
최신 설비를 사용하여 우수한 기술로 가공 생산하여, 고객이 원하는 적기에 공급을 실현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MPL 비드브라스트



CPL #4



CPL 헤어라인



MPL 바이브레이션